

기고

우리집 대피계획, 어린이 안전 지키는 가장 쉬운 준비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을 맞아 가정 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집 대피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가족끼리 어떤 역할을 맡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의 첫 단계는 집 안의 위험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제품을 꽂아 두거나, 전기장판을 접어 사용하는 행동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주방에서 불을 사용할 때 주변에 휴지나 수건 같은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대피 경로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침실에서 거실, 현관, 계단을 거쳐 밖으로 나가는 기본 경로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현관 쪽에 불이나 연기가 심해 나갈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베란다나 안방기 등 두 번째 탈출 방법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가족 역할 분담도 안전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119 신고를 받고, 다른 사람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돕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외부로 대피한 후에는 모일 장소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 놀이터, 단지 정문, 학교 운동장 등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 집합장소가 정해져 있을 경우,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피계획은 한 번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동해 보면 어두운 곳, 장애물, 위험요인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대피계획을 더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수칙이다. 10분만 투자해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각 가정 이 스스로의 대피계획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연웅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탓을 잘한다. 거의 모든 이들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잘 된 것은 내 탓, 잘못된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이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부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뼈격대는 것이다. 즉, 뼈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아쉬울 것이 손뼉만으로도 들어 등으로, 이렇게 자꾸 뼈기의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미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된다. 아니 미고 살 사람만이 아니다. 광범한 대화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마저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나날이 각박해져 가는 작금의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는 주변인뿐만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정치인은 험한 말로, 어떤 작가는 독한 문장으로 그리고 어떤 기자는 험하고 악한 기사로 무차별적 공격을 해대는 경우도 많다. 물론 기타 부류들도. 이런 상황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들의 말로는 대체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안에 걸려서, 고독해서, 혹은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허무함으로 인해 쓸쓸히 또는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했다. 인생은 참으로 짧다. 순간이다.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도 한때의 꿈일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사후에야 고국에 돌아왔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원팔에게 저격당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가 상상치도 못하는 자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스스로에게 울가미를 씌어버렸다. 아주 단단하게,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스스로 안아버린 것이다. 반성

의 기색은 여전히 없다. 하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으로 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에 보낸 선물이라는 말까지 토해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소인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다 보니까 별다른 짓거리까지 다하고 있는 것 같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현직 대통령 역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 중 제대로 삶을 마감한 사람은 누구인가.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이다. 물론 이들도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형극의 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기한 각종 전직 대통령들

과는 다른 형태다. 그야말로 이 나라를 민주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에 맞서려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팻소 등에 의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죽음의 고비를 엄청나게 넘었고. 그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죽음을 넘어, 사선을 넘어"의 삶이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투쟁이었던 말이다. 여하튼 앞서 예를 든 역대 대통령들만 봐도 더하기의 삶보다는 뼈기의 삶이 더 많았다고 생각되는 쪽이 훨씬 더 불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이 나라의 최고 권좌를 누렸던 사람들도 이리는데 하물며 기타의 사람들은 어떨겠는가. 모든 문물이 극도로 발전해가는 작금의 사회,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소외되는 계층은 뼈기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타의에 의한 뼈기의 삶이 되어버린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이제 제발 우리 모두 타의든 자의든 더하기의 삶을 살아보자.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다시 한 번 되새기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화재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진압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택용 소방시설, 특히 소화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소화기 사용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하고, 큰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 담양군 수북면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주민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은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화재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시작되었

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이 쉽게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주민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소방대는 현장에 도착한 뒤,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화재가 더 크게 번졌을 수 있었다"며 소화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사용되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할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

법을 반드시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화기와 같은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담양소방서 교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조현성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음력 10월 21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brief fortune descriptions for each sign.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